



錦繡江山을 다시 생각한다.

그때의 自負心으로

錦繡江山이란 비단에 수를 놓은듯이 아름다운 산천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三千里江山을 일컬어 錦繡江山이라 부른다.

누가 어느때부터 이러한 말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山河는 錦繡江山이란 표현이 결코 지나치다 할 수 없다.

四季節에 따라 변화되는 自然의 驚異로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韓國을 본 地球村 사람들은 “韓國은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라고 일컫는데 인색하지 아니했다.

작년 이맘때, 서울 올림픽을 지켜본 地球村 50億人口가 隱遁과 神秘의 나라로만 알려진 코리아가 그 장엄하고 幻想的인 개막식 퍼레이드를 펼칠때 “아 코리아가 저런 나라였구나!” 하면서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그때 우리는 “이제 우리도 先進國民이 되었다”고 너나할것없이 뿌듯한 자부심을 가졌었다.

그러한 자부심을 가진지 1년이 지난 요즘음 부끄럽게도 우리 社會 구석구석에 錦繡江山에서



최신철/ 환경청 공보담당관

태어난 국민으로서 올림픽을 치른 국민으로서 그 체면이 무색할 정도로 실망과 개탄할 일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다.

그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토, 이 산하에 분별없는 행락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인해 세계 어디에도 내놓고 자랑할만한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쓰레기 오물로 뒤덮혀져 쓰레기강산으로 변모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로버트·헌트” 경의 절규

1890년. 영국의 변호사인 “로버트, 헌트”경과 “옥타비아. 힐”여사 그리고 “카논 론즈레이”목사는 장차 영국의 아름다운 자연이나 유서 깊은 건축물이 언젠가는 이해성없는 부호들이나 시민들에 의해 희생되거나 변화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사적(史蹟)과 自然美의 保護”를 위한 목적으로 私設團體인 내쇼날 트러스트(National Trust)를 조직하였다.

이를 계기로 영국 국내에서 50여만명에 이르는 자연 애호가들이 규합됨으로써 자연미를 지키자고 하는 국민운동을 일으키는 큰 핵심역할을

하게 되어 1970년 드디어 법률 내쇼날 트러스트 액트(National Trust Act)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영국에 있어서 自然保護運動의 嚆矢가 되었으며, 이러한 정신은 전 세계로 파급되었고, 저마다 자연을 사랑하고 애호하는 운동이 힘차게 일어났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산하는 어떠한가. 예로부터 錦繡江山이라고 자나깨나 입버릇처럼 되뇌인 우리의 산하가 自然保護運動을 부르짖는 지도 십수년이 지났는데도 지각없는 행락객들에 의해 나날이 오염되고 있다.

그 옛날 우리의 선조들은 비록 과학문명이나 산업이 발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연에 대한 마음가짐만은 경건했다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선조들은 푸른산, 맑은물을 소중히 다루었다.

소나무나 대나무를 즐겨심고, 이것을 君子삼아 글로 쓰고 노래도 불렀다.

따라서 이러한 선조들의 행태에 비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산에만 갔다면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함부로 오물을 버리는 일이 보편화되어 있다.

우리는 산이나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天惠의 휴식처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실로 先祖들이나 “로버트. 헌트” 경이 개탄해하지 않겠는가.

良心이 外出한 利己主義者

그래서 그런지 오늘을 사는 사람은 자연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나 부족하다.

휴지나 담배꽂초를 거리에 버리는 사람, 약수터 주변의 소나무를 휘어잡으며 몸운동을 하는 사람, 계곡이나 바위틈에 오물을 버리는 사람은 그 행위 자체에 조금도 자책을 느끼지 않는 良心이 外出한 利己主義者들이다.

산에는 무수한 수목이 어우러져 있으며, 그속에 수많은 동물들이 뛰놀며, 우리에게 맑은 공기와 자연의 아름다움과 휴식처를 선사하는 그러한 곳에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자연을 훼손한단 말인가.

뉘시터의 경우만 하더라도 빈병, 휴지, 카아바이트, 찌꺼기 등을 함부로 버림으로써 주변을 오염시키고 그곳의 경관을 해치고 있다.

이렇게 버리는 오물속에는 많은 오염물질이 함유되기 때문에 하천이나 지하수, 토양의 오염을 가중시켜 우리의 식수원까지 위협하며 급기야는 산림의 황폐화까지 유발시킨다.

산이나 관광지에 가기만 하면 먹고, 마시고, 버리는 행태가 지속된다면 우리의 국토, 우리의 금수강산이 쓰레기 천국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자기의 쓰레기를 되가져갈 생각은 아니하고 아무곳에서나 버린다면, 이 국토는 누구의 땅이며, 이 땅은 누구에게 물려줄 땅이란 말인가.

양심이 외출한 사람들의 행태를 다시 한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늘어나는 쓰레기

그러나 뜻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행락지의 쓰레기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그래서 무엇인가 강력한 수단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정부도 더이상 계몽만 으로서는 실효를 거둘 수 없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자에 대한 스티커 발부제도를 시행함은 매우 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으로써 매일 배출되는 쓰레기 양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국민이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 배출량은 약 7만3천톤에 이른다.

이것은 한사람당 하루 540g에 해당되며 2.5톤 트럭의 경우 2만9천대분이다.

이처럼 늘어만가는 쓰레기중에는 관광유원지에 함부로 버리는 쓰레기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광유원지의 수는 줄잡아 641개소 정도이며 이는 도시 근교의 산이나 위락시설이

있는 자연발생유원지를 제외한 숫자이다.

641개소의 관광유원지는 우리 국토면적의 7.8% 수준에 해당되지만 이러한 관광유원지에 찾아드는 행락객수는 해마다 늘어나 88년의 경우 년평균 약 2억5천만이 넘는다고 한다.

그중 지리산을 비롯한 15개의 국립공원의 경우, 그 이용객이 년평균 3천만에 해당하며, 이들이 버리는 쓰레기양은 자그만치 1만7천톤으로 추산된다.



산이나 관광지에 가기만 하면 먹고, 마시고, 버리는 행태가 지속된다면 우리의 國土, 우리의 錦繡江山이 쓰레기天國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一等國民, 先進文化國民이 되려면 우리의 나쁜 관행은 지양해야 되며 오물 하나만이라도 이가로부터 함부로 버리지 않는 관행을 가져야겠다.

그것이 곧 先進國民이 되는 길이며 나라사랑의 길임과 동시에 子孫萬代에 물려줄 錦繡江山을 아름답게 가꾸는 길이 될 것이다. *